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간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남정리 1-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남정리 1-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남정리 1-1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

이번 주 금요일(20일), 저녁 7시30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두 세계’를 바라보라!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한 말을 중독자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부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술에서 해방되어 있다. 반면에 그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무엇이 한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게 하는가? 말을 중독자인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이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000년 전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던,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던 그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는 물고래미 처다보며 대답하였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훌륭한 인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이 그의 문제였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 그는 비록 취한 상태였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였다.(요 8:31~32) 결국 그 도 영원한 빛을 찾게 되었다.(요 8:12)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변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른 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변화가 일어난다. 반면 홀로하게 사역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우물중예 질려 어둠 속을 헤매는 경우도 많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로 5:10)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당신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다. 부활은 확실하게 '생명'이 다시 살아났음을 뜻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경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 (요 10:10, 5:24, 3:16)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렘 2:1) 숨을 쉬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죽은 사람인가!

항상 기독교를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보실 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며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창 1:27) 그것은 곧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이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이 완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이 관계는 믿음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세워진다. 그러

모든 사람들은 '두 세계' (요 18:36)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장황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또 다시 환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전 15:40, 49)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 1:1)에 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5)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두 세계를 향한 본격적인 첫 걸음을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눅 10:21)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최적의 마음 발이 되도록 이번 주간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의 강권함과 청지기훈련을 수종 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살전 5:25) 무엇보다도 두 세계의 진리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청지기훈련 당일에는 많은 호응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들려 교회로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가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실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청지기훈련 안내 및 좌석 배치는 본지 7면 참조

으로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인 아가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사탄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 (창 3:4~5)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벗어난 독립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름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후 생산의 법칙에 따라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좇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태어났다. (창 5:1,3)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예수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해야 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눅 1:10)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남녀노소 한 사람 한 사람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렘 2:4~5)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알고 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능력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삶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무언가 불만감을 느끼게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 이 진리를 붙들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더 많은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불가항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예수님 열의 강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을 살아가 불가항력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그날에 낙원에 이르렀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마 11:12)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체휼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냉담하게 죽은 전통적인 종교와 특별한 체휼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한다. 이러한 오류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오고 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란 것이다. 구원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곧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까지 구원에 속한다.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계신다. 동시에 천하 만물을 통하여 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근본은 달라진다. 아멘.

THE REASON CHRISTIANS DO NOT WORRY

⁽¹⁾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²⁾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³⁾ Philip said to Him, "Lord, show us the Father, and it is enough for us." ⁽⁴⁾ Jesus said to him,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have not come to know Me, Philip?"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John 14:1~9)

During the end of Jesus' earthly ministry, His personal conversations with Peter, Thomas, and Philip show us their troubled spirits. These men lived with Jesus day and night for over three years. They heard His preaching, witnessed His miracles, and even received private instructions from Him. One would think that they, of all people, would be the finest examples of true Christians. Yet, as Jesus' cross drew near, their love and loyalty faded. They literally flunked Christianity 101! How can you and I survive this life without worry when the disciples worried?

As Jesus talked with His disciples about His departure, Peter asked, "Lord, where are You going?" and Jesus responded,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Jn. 13:36) Peter said, "Lord, why can I not follow You right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Jn. 13:37) Jesus told Peter,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e? Truly, truly, I say to you, a rooster will not crow until you deny Me three times." (Jn. 13:38) Although Peter was worried about being separated from Jesus, Jesus revealed to Peter an even bigger concern. Jesus was not only telling him that He was about to leave, but also that Peter would reject Him before He even left. Don't you think Peter should be worried? No believer wants to be away from Jesus, yet alone reject Him, because not being with Him or rejecting Him means we are joining with the devil. Even in Peter's situation, today's message is about Christians not worrying.

As Jesus talked with His disciples about heaven, Thomas got worried. For Thomas, seeing was very important to believing, and his trouble came when he could not see. Jesus told him, "And you know the way where I am going." (v. 4) Thomas said to Jesus,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do we know the way?" (v. 5) Thomas could not see where Jesus was going, he could not see the way. Jesus told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v. 6) Thomas' vision of the future was dimmed, which created a feeling of lostness in him. He was scared because Jesus was talking about leaving, and he would not physically be able to see Jesus. Most Christians have the same problem. They are looking for earthly things, not heavenly things. They follow Christ to see the purpose of living, but if they cannot see how Jesus' life gives meaning to their existence, then they get worried. Even in Thomas' situation, today's message is about Christians not worrying.

As Jesus continued to talk with His disciples about heaven, Philip worried too. Jesus said, "If you had known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v. 7) Philip said to Him, "Lord, show us the Father, and it is enough for us." (v. 8) Jesus said to him,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have not come to know Me, Philip?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v. 9) Philip did not seem to grasp the basic concept of Jesus' being. He was confused. He had seen Jesus, but thought he had never seen the Father. Even in Philip's situation, today's message is about Christians not worrying.

How is it possible for Christians not to worry when those closest with the Son of God experienced worry? Everyone who looks for truth in earthly things will not find peace. Jesus clearly said,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v. 1) If you trust God you will get all the answers you need and have nothing to worry about ever. This is the answer for all people. Today's families, churches, and communities are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because they do not really trust God. They will pray, "Lord, help me", but they actually trust in their own power, methods, and principles. Their lack of faith makes them lose direction. What direction? The direction toward heaven! Earthly success is temporary, not eternal. Why do you worry? You worry because you are going after earthly success.

Jesus also said, "believe also in Me." (v. 1) If you believe in the real God, then you trust His Son. Every Jewish person proclaims to trust God because it is the principle of their religion, but they actually do not trust God. They trust their own pride, their pride of the Law, not Go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Jewish people always grumbled at God. How could they trust His Son, the Word that became Flesh, when they could not trust the Father? Jesus wanted to lead them to His Father, but they did not believe it. The bottom line is that if you really trust God and Jesus then you do not have any trouble going to heaven. If your heart is not humble and pure, then your deep insides will desire earthly things, your own things, and not godly things. The present trouble of Peter, Thomas, Philip, and the rest of the disciples arose from not truly believing in God. The command from Jesus is to exercise a true belief, and realize that the presence of the Father is manifested in the person of the Son.

If Jesus is going to prepare everything for you, why should you be worried? He told the disciples,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vv. 2~3) Jesus already left this earth, and is right now readying things in heaven for you. He is coming back and will open the door of heaven for everyone who believes. He is the builder and revealer of heaven. He is also its perfecter and guide to it. So, my dear friend, are you still worried? If so, it is simply because you do not trust God and Jesus, only yourself. Trust in the Lord God and you will have no reason to worry. 🙏

신자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매 너희와 함께 있도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1~9)



김성원 목사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베드로, 도마, 빌립과 개인적으로 나누셨던 대화를 살펴보면 그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사랑과 충성심은 약해져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기도와 초급과정에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근심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근심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 13:36)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7)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 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요 13:38) 베드로는 예수님과 헤어질 것에 대해 근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신자도 예수님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둘 다 마귀와 연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근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도마는 근심이 되었습니까. 도마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것을 생각하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4절)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5절)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었고 그 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6절)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웠던 까닭에 도마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자 이제 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극도로 곁에 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근심하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은 도마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근심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빌립 역시 근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7절)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8절)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매 너희와 함께 있도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9절) 빌립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납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면서 오 한 번도 아버지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근심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결코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1절)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가정, 교회, 공동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 방법, 원칙들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잃고 맙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까닭은 한 순간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1절)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아들을 믿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율법에 대한 긍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만 쏟아놓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천국까지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하지 않다면 마음 속에는 곳에서는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도마, 빌립과 다른 제자들의 근심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은 데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현존이 인간인 아들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근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2~3절) 예수님은 이미 이 땅을 떠나셨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요 천국을 나타낼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의 완전자이시며 안내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근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6. 11.)

메시아 (마태복음 1:17~23)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다. 이것은 신비이며 기적이다. 하나님인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은총의 계보를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마 1:1) '메시아' 즉 하나님으로 기를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였다. 따라서 성경적인 메시아 사상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를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로 예수님께 기를 부으셨다. 이 기를 부으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왕과 선지자로서의 기를 부으심이다. "너는 도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를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를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상 19:16)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기를 부으셨다. 그의 기업을 그 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0:1)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기를 부으심이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출 29:7~9) 예수님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를 부으심을 받았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을 통해서 기를 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울 왕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다. 기를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그 무엇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뿐

이다. 이처럼 기를 부으심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인류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즉 기를 부으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나라는 지상의 국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를 부으심을 받아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는 지상의 국가가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 8:23) 그런데 우리의 지성은 항상 이 땅의 것들에 맞추려고 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다.(요 6:38~39)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들을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 땅에 속한 지상의 국가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인간들이 만든 가치관, 세계관, 전통을 붙들며 메시아 왕국을 자신이 세우려고 한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면서도 메시아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요 6:51, 62, 65) 메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시아와 진실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의 것들, 수많은 감정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골 4:13~14) 인간의 의가 아니다. 믿음의 의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오직 믿음으로 열리는 주님의 나라는 지상의 국가가 아니다.

신약과 구약의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약과 구약의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마 12:28)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교회에 주셨다. 이것은 믿음의 법이다.(롬 8:3~4)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발바둥 친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뿐이시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생각, 행동,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마 16:17~19)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구하자.(마 18:16~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자.(마 28:18~20) 신약과 구약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구약의 성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구약의 성취이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아서 구분할 것이다.(요 25:31~32)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마 28:18~19)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것은 이 세상에 전무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찬 94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자.(벧후 3:12~13)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자.(계 21:1~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회개하며 자신을 깨뜨릴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를 부으심을 받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

(4:35~4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물려왔다. 물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서 복음을 들었다.(막 4:1) 말씀을 마친신 예수님은 타고 있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막 4:35) 다른 배들도 사람들을 태우고 예수님을 따랐다.(막 4:36)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던 중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막 4:37) 더군다나 바닷물까지 배안으로 들어와 배의 침몰이 예상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배의 운전석 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긴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다. "선생님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4:38)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토록 심하게 일던 광풍은 멈추었고 바다는 거칠거칠쩍 잔잔해졌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논쟁하고 있다. 특히 이 사대의 지성인과 과학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잔재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자못 기이한 일이다.(시 107:28~29, 104:7,9)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 잠은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영적 잠은 제자들이 지고 있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다.(욥 1:6)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생각뿐이

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막 4:40)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비록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지 참 믿음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막 8:29)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은데다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움 가득한 생각만했다. "그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사 11:4)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다. 오직 믿음만이 이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 1:1)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진 계보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법은 절대로 없다.(롬 8:38~39)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광풍과 거친 파도가 항상 존재한다. 그때마다 나에게 도움과 충고를 해 주는 '선생님'?(막 4:38)믿을 찾지 말자. 필요할 때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방법을 내세우지 말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합된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께 무릎 꿇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자.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길 것이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쉬고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디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찬 406장)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전도화별로 교회주변 전도를 나간다. 벌써 몇 년째 계속 되어지는 일이다. 처음에는 '잘됐다. 혼자서는 전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게 하시네,'라는 생각에 여러 전도회원들과 함께 나갔다. 그러나 전도를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이었다. 집집마다 뺨을 누르며 "중천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하면서 도망치듯 빠져 나오며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찰지는 모른다. '예수님은 그 귀한 보혈로 나를 사셨는데……,'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전도회 식구들과 서로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점점 담대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열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열매를 볼 수 없다 '이런 전도방법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전도지를 각 집의 현관에 꽂아놓은 뒤 남은 2장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택사에서 내리던 한 청년에게로 달려갔다. '그나 나에게 미소를 짓자 순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중천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집에 매주 전도지 꽂아놓고 가시는 분이시죠?" "예? 어디 사세요?" 청년이 가리키는 곳은 방금 <주간총현>을 찾고 나온 곳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업무상 밤낮이 바뀌고 너무 바빠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했다. 끝까지 몇호에 사는지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 가는 그에게 <주간총현>지는 꼭 읽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가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내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다. 그 날 이후 열매를 보려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졌다. 매달 총력 교회주변 전도일이 되어 전도를 나가는 회원들의 수가 많은 것은 주님의 별명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현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내게 해본다. "내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 뿌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내게 전도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교회에서 정한 나의 행사였기에 행하던 것이었다. 뿌리는 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전도가 끝나면 하나의 숙제를 해결한듯 묘한 시원함마저 느꼈다. 구속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기는 커녕 언젠가부터 내 속에 전도가 하나님의 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월말고사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과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삶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하고 외치는 그 현장에서조차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혜경(집사, 3교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3교구 1팀

☞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부자가 되고 잘산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지어 성경책을 전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말씀대로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현구 집사)

☞ 우리가 사역한 지역마다 우상이 가득하고 이단들이 가리지를 뿌려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박옥자 집사)

☞ 쓰레기 더미에서 만난 모녀는 우리를 못 본 척, 그냥 집으로 들어갔고 마지막에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기침과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지막하게 <예수 사

랑하심>을 찬양하는 중 손으로 주들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아프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안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였고 그녀는 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복희 집사)

☞ 현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적인 선교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박종규 집사)

☞ 정말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우리 팀을 사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연자 집사)

☞ 만나고 전도문장을 읽게 하고 영접기도를 시킬 때 그 어린 학생들은 모여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며 기뻐하였고 그들의 부모들도 옆에 서서 따라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허락 하에 학교운동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다. 우리 팀은 온 힘을 다하여 차트를 펼치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조효연 안수집사)

☞ 오! 주님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한 달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형 집사)

지나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일(월)-6월 10일(화)	11교구 3지역	김현배
6월 3일(화)-6월 11일(수)	5교구 2지역	이정태
6월 5일(목)-6월 13일(금)	7교구 5지역	송한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중등1부



장철현(장로, 중등1부장)

중등1부는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제1교육관 301호에서 예배를 드리며 10시 30분까지는 반별로 성경말씀을 공부한 뒤, 다시 찬양대와 면려회(학생회)로 나뉘어 성경의 활동을 하거나 영어성경 공부나 성경만 등 학생들의 적성과 기호에 맞는 특별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친밀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예배가 1시

간 30분 일찍 시작됨에 따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 복음의 중인들이 되어 전도와 선교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38명의 교사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네 양을 먹이라"(요 21:15~17) 명령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인근의 2개 중학교에 나가 학교전도를 통해 세상에서 유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기초가 튼튼하여야 안전하고 오래 유지되듯이, 앞으로의 인생설계에 첫 돌들을 시작한 중등1부 학생들에게 기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1부의 학생들은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다기를 세상의 높고도 험난한 파도를 능히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이끄시는 예수님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총동원 전도집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초청하곤 합니다. 5년 전 쯤, 반 아이들을 고등부 총동원 전도집회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왔고, 목사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한 학생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라고 물으니 “선생님, 저는 죄인이니까요.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전도집회 때 왔던 다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두 학생은 저를 무척이나 속 썩이던 골똥머리였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았던 두 명이었는데 복음이 선포되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은 4주 후에 등반하였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거듭난 것입니다. 학부보 상담 때 만났던 그 학생의 어머니도 아주 만족했었습니다. 이 후 치열한 영적 전투는 계속 되었지만 그 결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고등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기도가 있었었습니다. 대학부로 진급한 후 그들은 제 기억과 관심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해 교구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구로 이전된 학생 및 청년들 중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젊은이들의 인적사항을 보고 당시 인도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부 소그룹, ‘하서리’에서 정기적으로 말씀과 찬지를 보내주며 서신으로 양육받으며 믿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학생이 여러 있습니다. 이제 막 위의 과정을 시작한 학생도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에,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천국일꾼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영혼구원의 역사는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입니다.

홍준걸(만수집사, 2교구)

예수님이 나와 단 하루도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2002년도에 총현교회 대학부에 나온 저는, 현재 새가족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돌아해보면 참으로 목적 없이 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세상과 짝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에게 참된 만족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강한 팔로 나를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천국일꾼으로서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였고, 말씀과 찬양의 감동함을 주셨으며 기도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부르셨다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길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동안에 믿음의 시련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군에서 재대를 하고 난 뒤 대학부 팀장으로 권유받아서 갈까 했었습니다. 우선은 대학부에서 조장이나 팀장으로 한 번도 섬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더욱이 새가족 팀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을 때 주께서 그를 택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신실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에 기적되었습니다. 능숙함이나 노련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새가족 팀장으로 매주 대학부로 나오는 새가족들에게 내가 주님께 사랑 받은 것 그대로 새가족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단 하루도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생명은 헛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박민국(대학부)

2008년 권사수련회를 마치고

선택된 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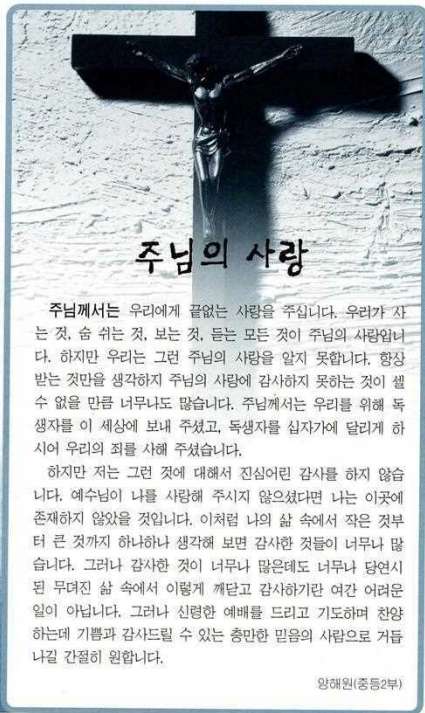
수련회의 말씀은 가뭇가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단비가 되어 주시고, 타성적이고 어딘가의 신임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이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한시적이고 썩어질 세상을 사랑하며 집착했던 나의 믿음을 회개하였다. 또한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거둬들여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기를 기도할 것이다. 구원을 얻기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소망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한 나그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나그네이다. 행복한 나그네! 나그네이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보좌하심을 받았으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택하신 구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위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는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갈 수 있다. 나의 힘이 아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소서!

서귀순(권사, 9교구)

백경숙(권사, 24교구)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쓸 수는 것, 보는 것, 듣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받는 것만을 생각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길 않으셨다면 나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너무나 당연시 된 무대진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기쁨과 감사드릴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양원애(총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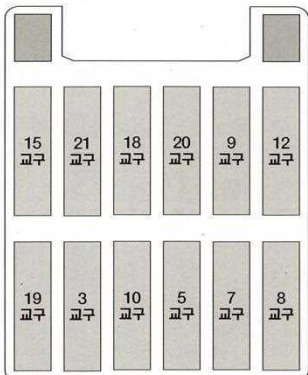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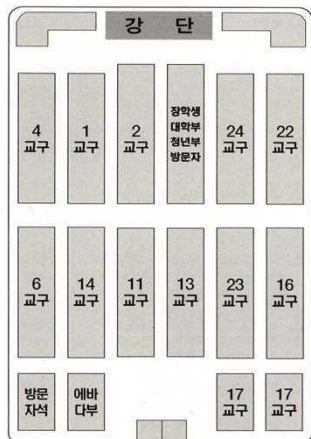
창지기훈련 좌석안내

제2차 창지기훈련을 기대하며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천국이 실체가 되는 기적



- 출석포에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모든 부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탁아부를 운영하시는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탁아부실(부모와 4세 이하), 영아부실(5세~7세), 베디나홀(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안배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관현악단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다. 더군다나 오해로 인해서 나는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오해로 빚어진 일이었기에 나는 너무나 억울했다. 거의 매일 밤 꿈속에서 욕하고 항의하다가 결국은 올라가 잠을 깨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앞에서 지켜보던 친정어머니와 남편도 함께 안타까워해 주었다. 친정어머니는 눈물로 지새며 기도해 주셨고, 남편도 할 수 있는 위로는 다 해 주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특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아파할 때에도 성령님이 같이 우시고 네 상한 심령을 친히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 주께도 모르고 남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려 들더니, 내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르는 바가 아니면서 얼마나 교만했고 나를 내세웠는지, 또 누구를 중상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깨닫고 회개하였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확신하였고, 분노와 슬픔 대신에 감사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의 열을 든든히 지켜주는 남편에게도 감사하였다. 이제 나는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케스트라 대원으로 거듭나고 싶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유정(집사, 팔복루아 오케스트라)

김희진(대학부)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68	박은진	25	예배다부	창지기(25)	1284	김준준	21	대학부	민선주(8)	1300	김태재	20	청년1부	이세재(23)	1316	이한기	7	창년2부	강두원(24)	1332	안재현	13	청년2부	변성철(10)
1269	홍준근	20	청년3부	박정민(13)	1285	신지영	19	대학부	신남식(1)	1301	홍지혜	12	중동부	김정현(19)	1317	조영준	17	청년3부	조준원(23)	1333	유재환	17	청년2부	변성철(10)
1270	홍준근	17	청년1부	이종기(15)	1286	김민지	22	청년1부	신남식(1)	1302	이윤진	14	청년2부	김기현(18)	1318	김정민	6	청년2부	유재환(23)	1334	양민지	17	대학부	김정현(17)
1271	이민지	4	대학부	이종기(15)	1287	김민지	17	청년1부	신남식(1)	1303	최규만	24	중동부	이상철(5)	1319	박정민	10	고동부	김준우(20)	1335	김준우	15	청년2부	김정현(17)
1272	오주원	10	청년3부	김정현(20)	1288	최현진	22	청년2부	김정현(4)	1304	박지민	3	중동부	김정현(13)	1320	김영호	15	청년1부	조준원(23)	1336	김준우	17	대학부	박정민(10)
1273	조우원	23	청년2부	김정현(12)	1289	장현숙	12	청년2부	김정현(10)	1305	장우현	13	초동부	정민현(3)	1321	신재민	5	고동부	정민현(4)	1337	김준우	20	대학부	박정민(10)
1274	서정주	23	청년2부	김정현(12)	1290	김민지	3	청년1부	신남식(3)	1306	박정민	1	초동부	박정민(1)	1322	박정민	5	고동부	정민현(4)	1338	김준우	20	대학부	박정민(10)
1275	김준우	17	청년1부	김정현(17)	1291	조우원	19	고동부	황준원(18)	1307	김우정	17	고동부	김정현(17)	1323	김준우	15	청년1부	김정현(15)	1339	김준우	10	청년1부	박정민(10)
1276	노소영	12	대학부	양숙자(6)	1292	김준우	20	청년1부	황준원(18)	1308	류민호	8	청년2부	박정민(1)	1324	김준우	6	청년1부	이민지(15)	1340	이민지	25	대학부	박정민(10)
1277	김민지	11	청년2부	김정현(15)	1293	김민지	12	청년1부	황준원(15)	1309	김정현	8	유년부	최정현(18)	1325	김준우	24	청년2부	한준우(23)	1341	김준우	8	청년2부	서정민(6)
1278	정민지	13	청년3부	신남식(23)	1294	주정민	19	대학부	김정현(6)	1310	김정현	17	청년3부	이민지(17)	1326	김준우	18	청년1부	김정현(22)	1342	최민지	21	대학부	이민지(6)
1279	김민지	5	대학부	박정민(15)	1295	박정민	6	청년1부	이민지(18)	1311	조우원	12	청년2부	이민지(18)	1327	서정민	20	청년2부	한준우(23)	1343	김준우	25	대학부	박정민(10)
1280	이민지	4	대학부	박정민(15)	1296	이민지	25	대학부	김정현(12)	1312	조우원	24	청년2부	홍지혜(10)	1328	박정민	11	대학부	조정민(1)	1344	김준우	25	대학부	박정민(10)
1281	남영숙	18	청년2부	김정현(18)	1297	김정현	19	중동부	이성경(5)	1313	김준우	24	초동부	조준원(24)	1329	조우원	6	대학부	박정민(1)	1345	김준우	25	대학부	박정민(10)
1282	이민지	7	고동부	박정민(8)	1298	김준우	22	대학부	이성경(22)	1314	김우정	22	청년2부	조준원(24)	1330	김우정	13	청년1부	박정민(8)	1346	김준우	25	대학부	박정민(10)
1283	김우정	7	소년부	이민지(8)	1299	이민지	18	대학부	이성경(24)	1315	박정민	3	청년1부	조준원(24)	1331	이민지	7	청년1부	이민지(17)	1347	김준우	25	대학부	박정민(10)

* 순환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